

거리두기 완화... 단체관광 부활하나

정부 1단계 적용시 방역수칙 외 집합금지도 해제 도내 여행사 패키지 상품 마련하는 등 잔뜩 고무 식당가도 단체회식 부활 기대하며 손님맞이 준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사라진 단체관광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누적 입도객 수는 509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수준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여름 성수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내달부터 사회적 모임 금지가 완화될 경우 단체관광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섰다.

도내 여행업계에서는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과 단체 골프 관광 패키지 상품 등을 준비하며 관광객 유치 작전에 돌입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에 맞춰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 정부가 최근 국가 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해외여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행안전 권역을 시행키로 하면서 해외 여행 패키지 상품과 관련해 현지 여행사와 함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 회식문화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 시내에서 돼지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5)씨는 "코로나19 이후 직장 내 회식이 사라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버스업계는 사회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더라도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세버스 탑승 인원(20명)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경우 단체관광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탑승 인원 제한 해제를 호소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권고안은 20명이 같은 전세버스를 타고 5인 이상 집합금지로 4명씩 각각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체 관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만일 탑승 인원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제주지역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방침이 완화되더라도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방역 단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버스 인원 제한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인원 제한 권고안에 대해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탐나는전 부정 유통 과태료 2000만원” 도, 특별단속팀 가동... 제재 수위도 상향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

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탐나는전의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 환수에 더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나는전을 받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 또는 서비스 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탐나는전의 부정유통을 적발한 경우 부당 이득액만 환수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등 제재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특별단속팀을 가동해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민기자



꽃망울 터트린 '으름난초' 21일 서귀포시 중산간 숲속에서 으름난초(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가 꽃망울을 터트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철새도래지 옆에 버섯이 텐트를 친 캠핑족(왼쪽)과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강민성기자

하도·김녕해수욕장 불법 캠핑 '몸살'

일부 캠핑족 철새도래지 옆 텐트 도로 주변 등은 쓰레기로 뒤범벅

코로나로 인해 여름철 피서지로 제주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다수 해수욕장이 불법 주차 및 캠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오후 구좌읍 하도해수욕장 인근 해변 모래사장과 풀숲에는 텐트들이 들어서 있었다. 텐트를 친 캠핑족들은 대부분 고기를 굽는 등 취사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5인 이상 모여 있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함에도 기본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하도해수욕장내에선 캠핑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길거리 주변 및 해수욕장 인근에는 마시던 플라스틱 컵, 과자 봉지 등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었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통행 불편도 야기됐다. 어느 한 차량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아 자전거 이용객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더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김녕해수욕장에서도 화장실 주변과 인근 건물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녕 주민 A씨는 "여름철이 되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먹고 놀다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며 "캠핑족들 때문에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력 계도는 힘들다"며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나면 해수욕장 관리 기준에 따라 민간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우 제주시장은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야영 금지 구역 내 불법 텐트 설치 등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강민성기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 협박·금품 갈취 10대들 검거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청소년 7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 2명도 성매수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A군 등은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 B씨를 도내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현장에 들이박힌 후 카메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지난 19일엔 남성 C씨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돈을 빼앗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시도했던 C씨가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자진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청소년 7명을 붙잡고 이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민성기자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성공 개최를 축하합니다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대한민국 제주어 세계일류상품.

JEJU OLIVE FLOUNDER

제주광어와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제국 광어!

조합장 한용선

상임이사 | 김광익

이사 | 백신애, 김수중, 김형철, 이운수, 김지택, 김용범, 김창유, 고민철, 오재혁

감사 | 강해원, 김두훈

본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17
Tel. 064-727-6105 Fax. 064-727-6611